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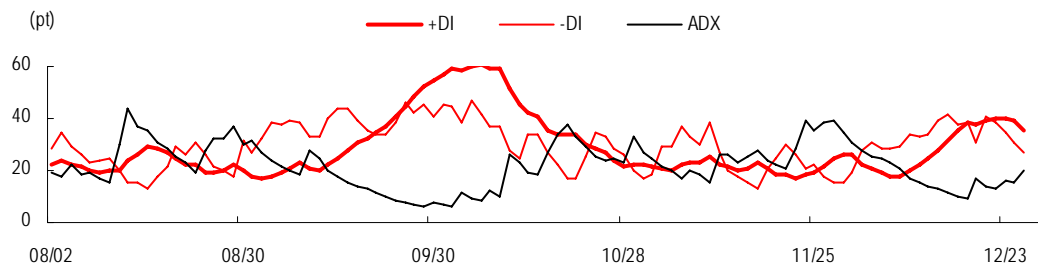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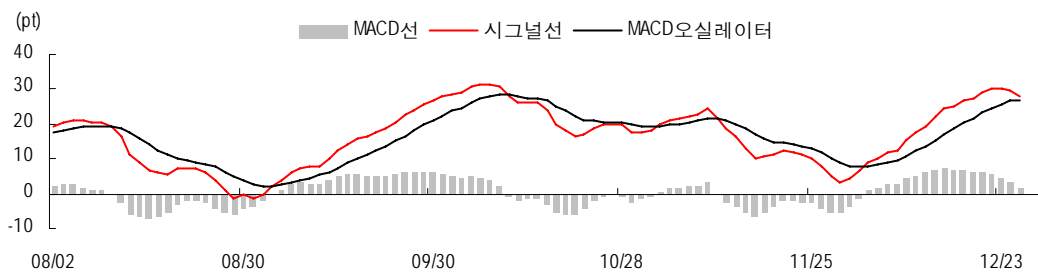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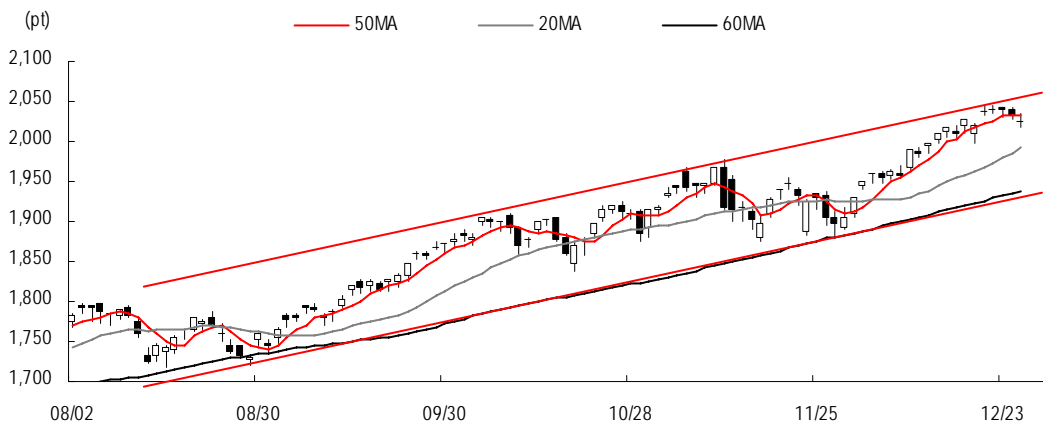
기술적 부담이 나타나는 모습

Technical Analyst 정인지
02-3770-3585 value93@myasset.com

단기 기술적 지표의 악화 국면

KOSPI가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세로 마감되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기술적으로는 지난 주 중반 이후 채널 상단선의 저항대에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전일은 장 중 고점이 5일 이평선 부근에서 형성된 후 하락했고, 보조지표들도 매도신호가

KOSPI,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MACD, ADX 지표 : 매도 신호 발생 임박



자료:한국증권선물거래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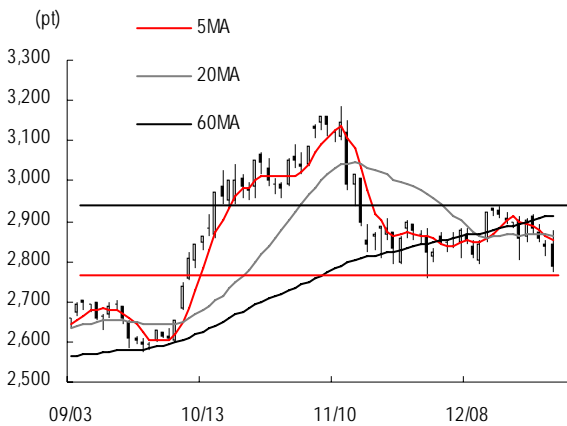
임박한 모습을 보였다. MACD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시그널선 이탈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DMI지표에서 ADX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단기 상승 추세가 마감될 가능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그러나 그 동안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저항대에 도달하고도 쉽게 조정국면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하방에 20일 이평선이 강하게 상승해 결과적으로 시장이 조정국면으로 진행되더라도 상승 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상승 시도가 나타난 후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그것을 조정국면 진입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된 대외 변수의 흐름의 영향

시장이 방향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외적인 흐름의 변화가 업종별로 상이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 중국 금리 인상 이후 업종별 등락에서 알 수 있듯이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하는 업종도 있고, 오히려 수혜가 되는 업종도 있었다. 중국시장이 약세로 진행되면서 한국 시장도 조정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국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좌측 하단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저점대에 도달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횡보국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와 중기 이평선들이 하락하면서 저항으로 자리잡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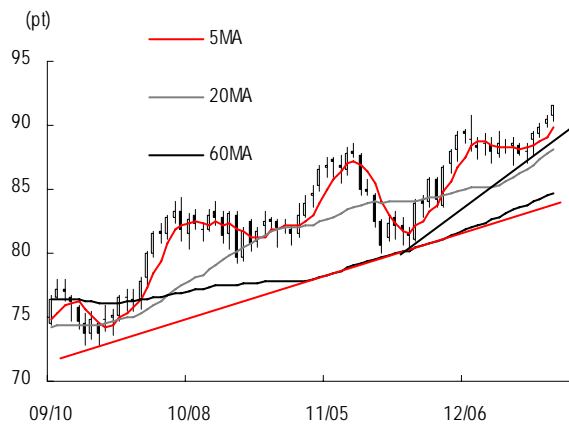
한편 선진국 주가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움직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WTI 최근월물 지수가 91달러를 넘어섰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기운기를 강화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유가 뿐 아니라 구리가격 등 경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점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Reuters,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국제유가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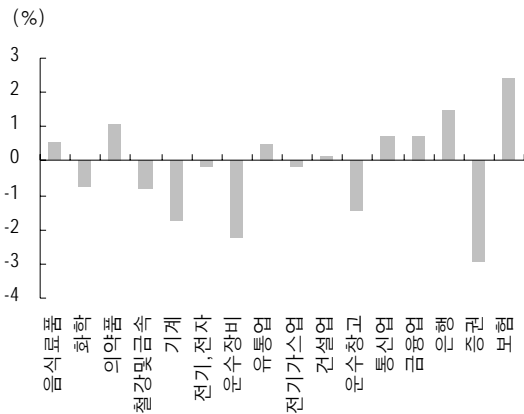
자료:Reuters,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기존 주도주의 관성과 방어주의 강세 속에서의 종목별 투자전략

전일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음식료, 의약, 유통, 통신, 금융, 보험업종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전기전자, 증권, 화학, 철강, 운수창고, 기계업종 등이 하락했다. 대체로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지수가 기술적 부담을 느끼고 조정으로 진행될 경우 이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우측 하단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료 업종지수는 이전 고점에 근접했고, 아직은 추세국면으로 진행되지 않아 지속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에서 나열한 방어주들의 흐름도 유사하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조정을 예상한 적극적인 방어주 매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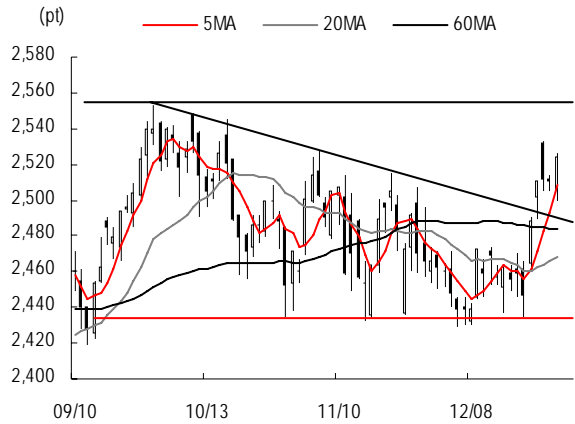
한편 그 동안 강하게 상승한 전기 전자나 금융업종 관련주들은 상승 추세가 강하게 진행된 후의 이격부담을 안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관성으로 쉽게 조정국면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고점이 만들어지기 까지 이들 업종에 대해서 매수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일 업종별 등락률



자료:한국증권선물거래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업종 지수 일봉, 이동평균선, 추세선



자료:한국증권선물거래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결국 업종에 대한 분류 보다는 각 업종 내에서 의미 있는 지지대를 확인했거나 상승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선조정을 받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종목들로 삼성 SDI, 웅진코웨이, 삼성물산, 에스원, 제일모직, 삼성엔지니어링 등을 들 수 있다.